

2002 선교 세미나

4강 도대체 뭘하지 -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까

임도마 선교사 (GP 선교회) / 2002. 7. 7.

오늘은 아웃리치를 통해 어떻게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선교 현지에서 아웃리치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사에게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 소진만 가져온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아웃리치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웃리치는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에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차례 선교대회에서 재헌신을 합니다. 여전히 헌신의 단계에만 머무른 사람이 90%이고 나머지 10%만 겨우 선교현장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웃리치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나마 선교에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한국선교는 도전과 헌신은 할 수 있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가이드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기도제목을 한국에 보내고 제출하려면 3개월이 걸립니다. 선교사가 진짜로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와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가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꼭 필요한 기도제목과 선교지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히 기도하기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웃리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인을 보며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많지만 현지에 가서 하는 기도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고는 하지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도로 직격타를 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생활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에서 한차원 뛰어 넘어야 합니다. 실제 기도는 현지의 악한 영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중보기도를 이제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선교사역지의 대적 세력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교사를 위하여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웃리치의 오해도 이런 것입니다. 아웃리치팀이 현지에 가지만 사실 그 땅의 영혼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기전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 워십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합니다. 실상 그 워십의 동작들이 현지인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결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어도 아무런 이해를 돕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웃리치를 갈 때 우리의 준비는 철저히 현지 선교사가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되 현지에서 유효적절한 것으로 준비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삶에서 보여줄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웃리치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달리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현지인과 함께 생활 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 그들은 변화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웃리치를 통해 얻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선교사역에 참여할수 있게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교동원가가 될수 있습니다. 선교적사명과 비전을 고취시켜 선교사 인력자원 개발과 그들을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는 후원동역자를 동원하는 일입니다. 세계선교는 지도자 뿐 아니라 동원가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 재정후원자를 돌보는 일을 할수 있고 선교지를 돌며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등 현장 단기 순회사역도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을 선교에 접목시켜 세계 선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외에도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연구한 자료를 영역별로 분석하며 전 분야의 자원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정과 기도 후원자가 되는 법과 선교단체와 기관들에 협력할수 있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